
 금융위원회	보도참고				 한국판뉴딜 대한민국 대전환
	보도	배포시	배포	20.12.09.(수)	
책 임 자	금융위 전자금융과 이 한 진(02-2100-2970)		담 당 자	김 종 식 사무관 (02-2100-2974)	

제 목 :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'20.12.10일(목)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분야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.

< 주요 QA(요약) >

- ① 12.10일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,
그러면 **인증서 없이도 모든 금융거래**가 가능한가요?

→ 원칙적으로 인증서는 필요합니다. 다만, 인증서가 요구되는 금융거래에서는 기존의 **공인 인증서** 외에 민간 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

- ②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**공인 인증서**로는
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나요?

→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**공인 인증서**는 '공동 인증서'로서 금융 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- ③ 12.10일 이후에도 **공인 인증서**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→ 공인 인증서는 변경된 명칭인 '공동 인증서'로 계속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- ④ 비대면 금융거래에 **사용가능한 인증서**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→ ①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(금융결제원, 코스콤 등 발급)
②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, ③ 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
인증서가 있습니다. (다만, ②, ③의 경우 해당 거래은행에서 「**금융실명법**」
수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)

⑤ 현재 금융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는
어디서,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→ 은행(인터넷·모바일뱅킹)이나 증권사 등의 앱(App) 또는 홈페이지에서
발급이 가능합니다.

⑥ 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하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?

→ ①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, ②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
할 수 있거나 ③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도 사용되는 등 편리하게
사용가능한 인증서가 다양하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⑦ 앞으로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 사용이 늘어날 텐데,
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?

→ 금융위는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금융 분야에서 인증서가 안전하게
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※ 붙임 : 주요 QA(상세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1. 12.10일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,
그러면 인증서 없이도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가요?

□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.

□ 공인 인증제도의 폐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인증서가 폐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.

○ 기존에는 정부 주도로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 인증서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법적 효력*이 부여되었지만,

* 舊 전자서명법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이고, 서명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(推定)

- 이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 인증서*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.

* 다만, 공인 인증서는 '공동 인증서'로 명칭이 변경됩니다.

□ 따라서, 국민들께서는 공인 인증제도의 폐지 이후에는 공동 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2.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나요?

- ☐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**공인 인증서**는 ‘**공동 인증서**’로서 **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**할 수 있습니다.

* **금융결제원, 코스콤** 등 기존의 공인인증기관이 **전자서명사업자**로서 **금융회사**에 제공하는 인증서비스

- 기존에 발급한 공인(공동)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(1개월 이내) 경우 **갱신***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* 갱신회수에는 제한이 없으며,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·모바일앱에서 갱신가능

3. 앞으로 공인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- ☐ 공인인증서는 변경된 명칭인 **공동 인증서**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- 기존의 공인 인증서과 동일하게 **은행창구**(신분증 지참)에서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**공동 인증서**를 발급받으면 됩니다.

※ (참고)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권 공동으로 출시한 ‘**금융인증서비스**’는 ‘**공동인증서**’와는 **별개**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.

- ▶ ‘**금융인증서비스**’는 **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**하여 편의성과 보안성을 개선한 인증서비스입니다

4.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□ 금융거래에 이용이 가능한 인증서에는,

- ①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**공동 인증서**(금융결제원, 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)와 ② **개별 은행** 등이 발급한 인증서, ③ **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** 등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습니다.

- 다만, ②는 他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, ③은 「금융실명법」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< 현재 이용가능한 인증서 종류(예시) >

인증서 종류		발급기관	주요특징
①	공동인증서	금융결제원, 코스콤 등	기존 공인 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가능
②	금융인증서비스	금융결제원	은행(22개) 및 카드사 등에서 이용 가능
	KB모바일 인증서	KB국민은행	각 은행(모바일뱅킹) 앱을 통해 금융그룹별 서비스에 이용 가능
	NH원패스	NH농협은행	
	하나원큐 모바일 인증	하나은행	
③	PASS 인증서	이동통신 3사	개별 서비스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며, 각 플랫폼에 연계된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
	카카오페이 인증서	카카오페이	
	네이버 인증서	네이버	
	페이코 인증서	NHN페이코	
	토스 인증서	비바리퍼블리카	

□ 위와 같이 인증서마다 이용방법, 금융회사·금융거래별 이용범위 등이 다르므로,

-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시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

[참고1] 금융권에서 이용가능한 인증서 현황

- ① 12.10일 이전 : **공인 인증서**는 은행·보험·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가능(금융결제원, 코스콤 등이 발급)
- ②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는 12.10일 이후 :
 - ① **공동 인증서**(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)는 은행·보험·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 가능
 - ② **금융인증서비스**(금융결제원)는 신한·국민·우리·하나·농협 등 주요 은행을 포함하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이용가능
※ 다만, 시스템 준비상황 등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은 12.10 이후 이용가능
 - ③ 국민·하나·농협·기업 등 일부 은행은 **자체 인증서**를 발급
(다만, 해당 인증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)

< 금융권별 이용가능한 인증서 현황 >

		12.10일 이전	12.10일 이후		
		공인인증서	공동인증서	금융기관 자체 인증서	금융인증서
		금융결제원, 코스콤 등 발급	금융결제원, 코스콤 등 발급	개별 금융기관 발급	금융결제원 발급
은행		○	○	국민, 농협 하나, 기업 등	22개 금융기관 등*
보험	생명	○	○	KB생보 등	메트라이프생명, 교보생명 등
	손해	○	○	KB손보 등	DB손보 등
증권사		○	○	KB증권 등	×
기타 (카드사 등)		○	○	KB국민카드 KB저축은행 등	우리카드, 롯데카드 등

* (12.10 이용가능) 산업, 국민, 수협, 우리, SC제일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새마을금고, 하나, 신한 (14개 기관)
(12.10 이후 이용가능) 기업, 농협, 산림조합중앙회, 중국공상, 케이뱅크, 씨티, 카카오뱅크, 신한 등

- ③ 향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이용*될 것으로 전망

* 민간 인증서가 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증서 발급시 「금융실명법」 수준의 신원확인이 필요

5.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,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?
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?

- ☐ 금융거래에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은행(인터넷·모바일뱅킹) 등 금융회사의 앱(App)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다만,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,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사본 제출, 영상통화 등의 실명확인 절차*를 거쳐야 합니다.

* 인증서 등 '접근매체' 발급시 「금융실명법」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
(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6조제2항 및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34조제3호)

- ☐ 인증서 발급비용은 대체로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,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습니다.

6. 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하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무엇 인가요?

□ 선택하시는 민간 인증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, **공인 인증서의 단점을 보완**한 인증서서비스를 **간편하게 사용**하실 수 있습니다.

○ 예를 들어, 금융결제원의 금융권 공동의 '금융인증서비스'는,

①**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**, ②**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**되어 스마트폰에 따로 이동·저장할 필요가 없고,

③**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** 등으로 **간편하게 사용**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 기존 공인인증서와 새로운 인증서(금융인증서비스)의 비교 >

	기존 공인인증서	금융인증서비스*
프로그램 설치	플러그인 설치 필요	별도 프로그램 설치 불필요
저장장소	PC, 스마트폰 등	클라우드
유효기간	1년	3년
인증방법	비밀번호	지문, 간편비밀번호(6자리)

* '금융인증서비스' 상세내용은 금융결제원의 보도자료(12.4일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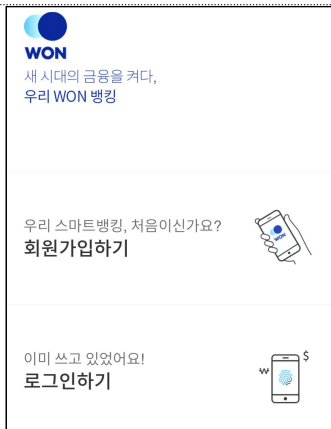
○ **개별 은행 및 플랫폼 사업자는** 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
□ 향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 간의 경쟁이 촉진되는 경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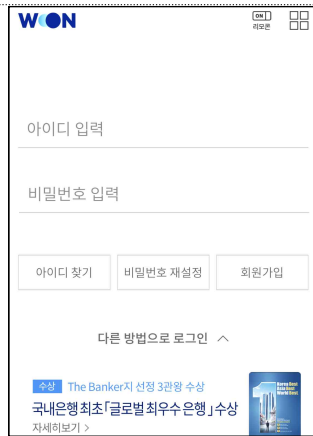
○ 혁신적인 인증기술이 새롭게 출현하여 국민들께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【참고2】 민간인증서 발급 절차 예시 : 금융인증서비스(금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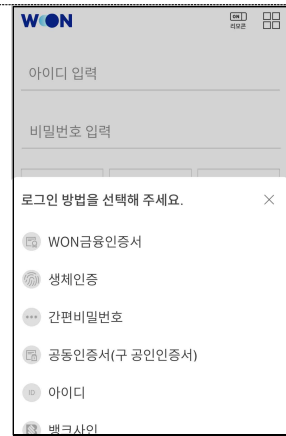
□ 모바일뱅킹 앱에서 금융인증서 발급 (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사례¹⁾)



① 모바일뱅킹 앱 실행 (로그인하기 선택)



② 로그인 방법 선택 (다른방법으로 로그인 선택)



③ 금융인증서 선택 (WON금융인증서 선택)



④ 금융인증서 발급 안내 (등록/재등록하기 선택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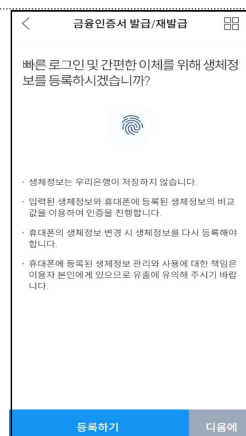
⑤ 신원확인 절차 (휴대폰 본인확인 진행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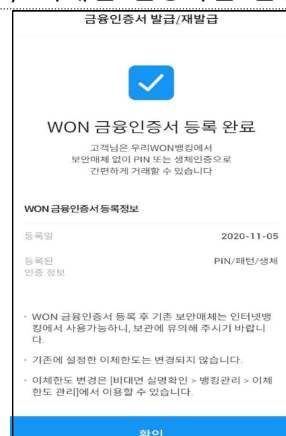
⑥ 추가 신원확인 절차²⁾ (보안매체(보안카드/OTP소지 시) / 비대면 실명확인 진행)



⑦ 간편비밀번호 등록 (숫자 6자리)



⑧ 지문, 패턴 등록 (이용 희망 시 등록하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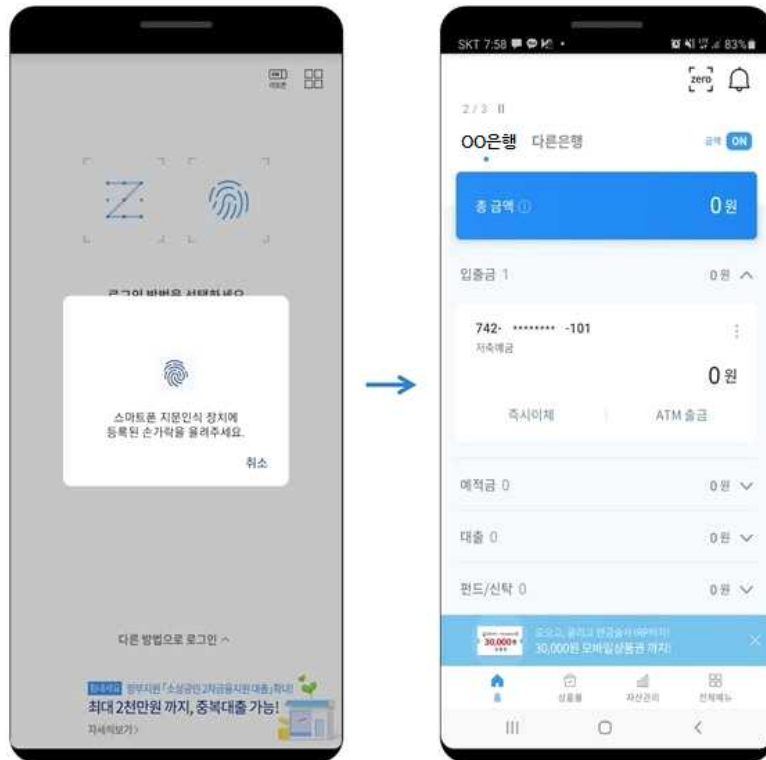
⑨ 금융인증서 발급·등록 (확인버튼으로 완료)

주1) 12.10일 현재 우선 적용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사례를 활용 (PC에서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이용)

주2)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 등으로 대면 실명확인을 거친 경우 보안매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, 미리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앱·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실명확인(신분증촬영+계좌인증) 절차를 진행

[참고3] 민간 인증서를 이용한 금융거래 예시 : 금융인증서비스(금결원)

□ 금융인증서(지문, 패턴)를 이용하여 로그인 예시(모바일뱅킹)



로그인 시 등록된
지문, 패턴 요구

모바일뱅킹 앱
로그인 완료

□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예시(인터넷뱅킹)



① 이체금액 확인

② 금융인증서 선택

③ 간편비밀번호 입력

7. 앞으로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 사용이 늘어날 텐데,
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?

- 금융분야는 **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**하여야 하므로,
 - 금융분야에 사용되는 인증서는 편리성 뿐만 아니라 보안성과 안전성도 중요합니다.
- 국민들께서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인증서를 **안심**하고 **안전**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,
 - ① 출금이나 이체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**보다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증서***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- * 정부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서가 갖추어야 할 **기술적 요건**을 제시하고 민간 인증서가 이를 준수하였는지를 **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심사**
 - ②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**복수의 인증수단이 사용**되도록 하겠습니다.
 - * (**현재**) 공인인증서 정보(+인증서 비밀번호 등)가 유출시 금융사고 발생가능
→ (**개선**) 고위험거래에 대해 **인증서 + 추가인증**(예 : 지문, 얼굴인식 등) 필요
-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다양한 인증서가 금융거래에 이용됨에 따라 **금융회사의 책임**도 함께 **강화**하겠습니다.
 -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'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·송금(예: 부정결제사고)'까지 확대하겠습니다.

※ (참고) 상세내용은 「**금융분야 인증·신원확인 제도 혁신 방안**」을 통해 알려 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.